

확~ 달라진 차일목



후반기 타율 3할8리·도루 저지율 83%...공·수 맹활약



‘호랑이 군단’의 안방 싸움에 불이 붙었다. 후반기가 시작된 지난주 KIA 포수 차일목은 머리를 삭발하고 경기장에 등장했다. 차일목은 “날도 덥고, 분위기도 바꾸기 위해 시원하게 머리를 밀었다. 아들하고 같이 밀었다”고 멋쩍게 웃었다. 머리로 후반기 의지를 불태운 차일목은 공·수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올 시즌 타율이 0.200에 불과하지만 후반기 6경기에서 13타수 4안타(0.308)를 기록했다. 지난 2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솔로포도 터트리는 등 멀티히트도 남겼다. 달라진 도루 저지 능력은 놀라울 정도다. 후반기 첫 경기에서 LG 백창수의 발을 두 번이나 묶으며 5-3 승리를 완성한 차일목은 후반기 6차례의 도루 시도에서 5번을 막아내며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달라진 차일목에 KIA의 안방에 활기가 돈다. 포수는 KIA에게 고민 많은 포지션이었다. 안방을 지켜오던 김상훈이 은퇴를 발표했고 차일목이 확실한 믿음을 주지는 못했던 터다. 신에 백용환과 이흥구의 경쟁구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백용환이 전반기 31경기에 나와 한방으로 눈길을 끌기는 했지만 수비에서 실수 연발을 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백용환과 경쟁을 했던 또 다른 신에 이흥구는 퓨처리그 경기 도중 손등 골절을 당하며 전반기 대부분을 재활조에서 보냈다. 지난 6월 이흥우의 등장으로 그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여객 부상으로 뒤늦게 시즌을 출발한 이흥우는 안정된 수비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마운드를 다독이는 것도 이흥우의 역할이었다. 특히 성격 급한 마무리 어센시오를 다독이기 위해 마운드에 오르기도 했다. 이흥우는 “모든 선수들이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우리 팀의 마무리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자신감 있게 공을 던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KIA 안방이 깨어났다

자신감 충만 이성우



안정된 수비·듬직한 투수 리드...결정적 순간 ‘한 방’

이성우가 투수들에게 하는 얘기는 “내가 다 막겠다.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다. 공격적인 패턴으로 빠르게 경기를 풀어가는 차일목과 포근하고듬직하게 풀어나가는 이성우, 두 가지 색의 리드가 어우러지면서 안방이 풍성해졌다. 이성우의 타격 페이스도 나쁘지는 않다. 1군에 등록된 첫날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전반기의 승자였던 이성우와 후반기 주도권을 잡은 차일목. 두 포수에게 남은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더 절실한 이유가 있다. 새 신랑인 이성우는 모자에 ‘멍둥’이라는 단어를 써줬다. 내년 1월 태어날 아기의 태명이다. 차일목은 얼마 전 둘째를 얻으면서 두 아들의 아빠가 됐다. 올 시즌이 끝나면 FA(자유계약) 자격도 얻는다. 가장의 책임감으로 이를 악문 두 포수의 안방싸움이 KIA의 새 에너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최소경기 100안타

KIA 김주찬이 최소경기 100안타 기록을 갈아치웠다.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주찬이 29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회 선두타자로 나와 찰리를 상대로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김주찬은 이 안타로 62경기 만에 100안타를 채우면서 최소경기 100안타 기록을 갈아치웠다. 앞선 기록은 64경기로 1999년 LG 이병규와 올 시즌 넥센 서건창이 작성했다. 한편 김주찬은 이날 경기 전까지 61경기에 출전해 0.381의 타율로 7홈런 34타점 15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 살아있네~

양키스전 2루타...5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32·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6번째 2루타로 5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추신수는 28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때렸다. 추신수의 타율은 0.243으로 변함없었으나 출루율은 0.354로 약간 내려갔다. 텍사스는 갈 길 바뀐 양키스를 4-2로 물리쳤다. 텍사스의 선발 투수 다르빗슈 유는 7이닝을 2점으로 막고 승리를 따내 3년 연속 10승 고지를 밟았다. 우중간을 철저히 봉쇄한 상대 시프트 수비에 막혀 1회 2루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양키스 우완 선발 데이비드 펠프스의 슬라이더를 끌어당겨 우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터뜨렸다. 이번에도 수비가 오른쪽으로 다 몰렸지만 추신수는 마치 잡아 보란 듯이 비어 있는 구석으로 타구를 보냈다. 24일 양키스와의 경기 이래 5경기 안타 맛을 봤으나 추신수는 5회와 6회 연속 무사 1루에서 진루타 대신 각각 좌익수 뜬공, 2루수 땅볼로 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를 끝으로 은퇴하는 양키스 주장 데릭 지터는 다르빗슈에게서 안타 3개를 빼앗아 역대 최다 안타 순위 7위(3420개)로 한 단계 뛰어올랐다. 지터의 텍사스 고별 3연전 첫날,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는 4만4508명의 관중이 운집해 당대 최고 스타를 뜨겁게 예우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골프 ‘여름 여왕’은 누구



김효주

장하나

최나연

백규정

KLPGA 김효주·장하나 등 총 상금 36억 놓고 5주 연속 경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더위 속에서 ‘여름 여왕’을 가린다.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끝난 뒤 한주를 쉰 KLPGA 투어는 31일 개막하는 한화금융 클래식을 시작으로 8월 31일 끝나는 채리티 하이원리조트 오픈까지 5주 연속 대회를 이어간다. 5주 동안 걸린 총상금만도 36억원으로 이 기간 2014 시즌 상금왕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은다. 5주 연속 강행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대회는 충남 태안인 골든베이 골프장(파72·6631야드)에서 열리는 한화금융 클래식이다. KLPGA 투어 최고의 총상금을 자랑하는 한화금융 클래식은 우승 상금도 3억원이나 돼 선수들이 우승을 탐내는 대회다.

이번 대회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김효주(19·롯데)다. 올 시즌 2승을 거둔 김효주는 상금 4억7000만원을 쌓아 2억 8800만원의 상금 랭킹 2위 장하나(22·비씨카드)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올해 10개 대회에서 2개 대회를 제외하고 모두 톱10안에 든 안정된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김효주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일찌감치 상금왕을 예약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자들이 김효주의 독주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상금 랭킹 7위로 처진 김세영(21·미래에셋)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버리고 있다. 김세영은 작년 이 대회

에서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던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마지막 날 5타차를 뒤집고 연장전에서 역전 우승의 드라마를 썼다. 올해도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1위(271야드)를 달리는 김세영이 장타를 앞세워 김효주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PGA 투어 멤버 최나연(27·SK텔레콤)도 LPGA 투어가 열리지 않은 공백기에 이번 주 대회에 출전, 우승 경쟁에 가세한다. 최나연은 2012년 이 대회에 출전, 공동 4위에 올랐다. 이 밖에 김효주와 함께 2승을 거두며 다승 부분 공동 선두를 달리는 루키 백규정(19·CJ오쇼핑), 백규정과 신인왕을 다투는 김민선(19·CJ오쇼핑)이 불꽃 튀는 샷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연합뉴스